

# 9개월 공식 여수상의회장 오늘 뽑는다

### 상공인들 안중일 대표 추대 움직임속 경선 가능성도

### 시민단체 “대립보다 상생·화합, 박람회 구심점 돼야”

여수지역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선거가 28일 치러진다.

여수상의는 지난해 5월 김광현 전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9개월간 회장 공석상태에 놓여 파행 운영돼왔던 만큼, 지역 상공인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자리에 누가 선출될지에 지역사회의 눈이 집중되고있다.

현재 회장 후보로는 (주)유진기업 안중식 대표, (주)대광솔루션 보상봉

대표, (주)영동E&C 박정일 대표, (주)대도종합건설 박정길 대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한때 회장후보로 거론됐던 (주)제원산업 심장섭 대표는 회사업무와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를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상의의 한 회원은 “그동안 지역 상공인 사이에서는 이를 회장후보들이 소통을 통해 단일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 밝혔다. 지역 상공계 일각에서는 이미 안 대표를 단일화가 성사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름을 요구한 한 상공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율을 통해 문 대표와 박 대표가 안 대표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일후보 추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수상의의 한 회원은 “단일후보로 안 대표가 거론되지만 다른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당할 수 없지만 사실상 단일후보 추대는 어렵고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여수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수상의가 회장 사퇴 등으로 파행을 겪은 만큼 새로 선출될 회장이 누구든지 간에 산단과 지역 상공인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박람회를 앞두고 분열과 대립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지역 경제계의 구심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회장선출을 위해 지난 23일 의원선거를 실시하고 39명의 의원(일반의원 35명·특별의원 4명) 선출을 마쳤다. 선출된 의원들은 28일 오전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한다. 단일후보 단일후보 추대는 어렵고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꽃망울 터뜨린 순천 흥매화

상징하기도 한다.

최근 순천시 매곡동에 봄을 알리는 흥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매화는 잔설속에서도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굳건히 꽃을 피우며 선비의 절개를

(순천시 제공)

## 곡성군 내년 농림 예산 925억 신청키로

### 농업·식품산업 심의회 의결

곡성군은 27일 ‘2012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열고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3년도 농림사업 신청 사업성 검토와 예산규모

등 심의를 통해 ▲자율사업 24개 사업 429억5천500만원 ▲공공사업 6개 사업 245억5700만원 ▲광복사업 2개 분야 12개사업 249억5800만원 등 총 32개 사업 924억7000여만원을 신청키로 의결했다.

허남석 군수는 “농림분야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추진하고, 예산신청 후에도 농림수산식품부, 기

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전남도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달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K-water 주암댐관리단 ‘실버 교육원’ 개설

## 어르신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호응

K-water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이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을 위한 ‘실버교육원’을 개설, 호응을 얻고 있다.

K-water주암댐관리단은 지난 24일 보성군 북내면(사진)을 시작으로 문덕면, 겸백면, 울어면, 순천시 주암

면, 송광면, 상사면, 외서면,낙안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암댐 실버교육원 사업은 댐 주변 지역 주민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주암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9개면 노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회관을 찾아가 매주 1회 노래교실과 댄스, 요가, 야외회, 체육대회, 생신 잔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댐 주변지역 노인들은 건강과 교양, 정서적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함께 유지할 수 있고, 삶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유익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주암댐관리단 김관중 단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장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청년실업·중기인력난 해소

### 순천시 청년인턴사업 추진

순천시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실업자인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달에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16개기업 47명의 인원이 접수됐다.

시는 기업에서 일할 청년인턴 28명을 다음달 4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전남도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며, 대학 재학생과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자는 제외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 전북

# 익산 최초·최고·최대의 매력 한눈에

### 시민공모·공무원 제안 자랑거리 284건 발굴 책 펴내

익산시가 최초(最初)·최고(最高)·최대(最大) 등을 찾는 ‘이것만은 내가 최고’ 시민공모 및 공무원 제안을 펼쳐 284건을 발굴했다.

익산시는 최근 유가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시민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고 분야별로 업선, ‘익산자랑거리 플러스(plus+)’를 펴냈다.

이 책에는 ▲문화관광 48건 ▲경제사회 38건 ▲인물 29건 등 총 115건의 ‘익산 자랑거리’가 실려 있다.

문화관광편에는 고려시대 왜구 침략을 가장 크게 물리친 진포대첩 전적지인 용포, 왕궁 보석박물관 내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보석판매장 주얼플러스,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으로 1884년에 제작된 황동교회와 종 등이 실려 있다.

경제사회편에는 고구마 증순으로 1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전국 증순 유통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고구마순 재배 마을인 삼기면

채산마을과 이 마을 출신으로 해남에 고구마를 전파한 남궁 기동 씨 이야기 수록돼 있다. 또 윤흥길, 박병신, 양귀자, 안도현 등을 배출한 한국문학의 동몽문예사 대한민국 최초의 서예학자가 있는 원광대학교, 1934년에 설립된 이리보육원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첫 경지정리 지역인 오산 황금들녘, 익속 수리조합, 호남작물 시험장 등을 통해 동북아 식수수도를 비전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탐마루 쌀’로 국내외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품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인물편에서는 ‘메세나 운동’을 주도했던 ‘함라 3부작집’과 근대 5명창 정정렬 국창, 거문고 산조의 거장 신평명인, 관소리 대가 조봉달 명창, 이리 우도봉과 설장고 기능 보유자 김형순 씨, 농악과도 농악 전수자 이인수 등 등 계보를 잇는 익산 출신 국악인들을 통해 익산이 한국의 소리 기행 관광도시로서 가능성을 엿볼 수



###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 익산 황동교회 중(1884년 제작).

있다. 특히 태릉선수촌 박종길 촌장을 비롯한 탁구로 만리장성을 넘은 양영자 선수, 배드민턴 선수 김동문, 우리나라 최고의 검객인 펜싱 이상기 선수 등이 소개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남원 시설원에 에너지 효율화 성과

### 생산비 절감·소득 증대

남원시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총사업비 20억 8550만원을 투입해 겨울철 난방과 보온이 취약한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다겹 보온커튼과 목재 펠릿 난방기 등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도 고구마시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15억5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파프리카와 오이 등 보온관리

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해 FTA 대비 신선농산물 품목별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2640㎡ 규모의 시설오이를 재배하는 김용익(사매면)씨는 지난해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했다.

김씨는 기존 유투난방(1980㎡ 기준)시 연간 2800만원어치가 소요됐으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후 800만~1600만원으로 줄어들어 1200만원~2000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연간 조수익도 35~40%가 증대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약수제 내달 3일 개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3월 3일 남원시 산내면 반선 관광주차장에서 열린다.

산내면 번영회와 산내면 주회로 열리는 이번 약수제는 ‘고로쇠로 시작하는 2012년 힐튼 출발’을 주제로 약수제 길놀이, 약수 제례, 지리산골 노래자랑, 약수 빨리 마시기 대회, 약수 마시고 콘소리 내기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누구나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시

음장과 생산자와 직거래로 약수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최인철 산내면 번영회장은 “올해 약수제는 여는 해보다 많은 방문객에게 물에 좋은 양질의 고로쇠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산내·주천·운봉·인월 등 4개면 320여 농가들은 연간 720여톤의 고로쇠액을 채취해 2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 보물 지정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향로가 보물로 지정됐다.

익산시는 “문화재청에서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53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출토 경위가 확실하며, 완벽한 보존 상태를 지닌 작품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첫 예가 되는 통일신라의 금동수

각형 향로라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또 금동향로 기원과 형식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국적 수각형(獸蹄形) 향로(香爐)로 정착을 이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지난 2000년 10월 미륵사지 일대 보수 공사도중 발굴됐으며, 통일신



### 라시대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뉴스 브리핑

###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익산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홈페이지(market.iksan.go.kr)를 전면 개편하고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거래품목과 실시간 경락정보, 농수산물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 사이트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도매시장에 입주한 익산 원예농협과 이리청과, 이리수산 등 3개 법인·중도매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경락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해외시공 실적 허위기재 건설사 입찰 제한

해외시공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도내 모 건설사의 입찰이 제한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백토 고개 교차로 공사 시공사인 도내 S건설사가 대한 지방검찰청에 의해 해외 시공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에 따라 12개월 29

일간 입찰제한을 받게 됐다. S건설은 지난해 5월 군산시에 추진한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돼 같은 해 6월 16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해외시공 실적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정읍시 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자금 본격 지원

정읍시는 지난 27일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농협중앙회·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날 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며, 보증재단은 정읍시가 추천한 영세 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10억원을 특별보증한다. 이는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문의(063-539-5601)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충남 흥성 환경마을과 업무 협약

순창군은 27일 청소년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충남 흥성 환경농업마을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흥성 환경농업마을은 순창군의 친환경 농축산업이 발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순창군은 흥성환경농업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에 참석, 교육생 추천, 흥성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약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